

##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덕원<sup>1\*</sup>, 주호현<sup>2</sup>

<sup>1</sup>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원광대학병원 응급구조과

<sup>2</sup>광양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ress of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Students

Duk-Won Kim<sup>1\*</sup>, Ho-Hyeon Ju<sup>2</sup>

<sup>1</sup>Dept.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Wonkwang University Hospit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EMT)

<sup>2</sup>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yang Health Science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전라북도과 전라남도 4년제 대학 1개와 3년제 대학 4개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중에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 276명을 대상으로 2017년 09월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0.192$ ,  $p=0.001$ ), 취업스트레스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0.222$ ,  $p<0.001$ ), 취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0.245$ ,  $p<0.001$ ). 다중회귀분석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beta=0.157$ ,  $p=0.005$ ),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beta=-0.211$ ,  $p<0.001$ )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3학년( $\beta=0.237$ ,  $p<0.001$ )과 4학년( $\beta=0.288$ ,  $p<0.001$ )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높았고,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보통인 학생들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beta=0.173$ ,  $p=0.012$ ).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고, 취업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해 취업기관의 확대와 취업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Emergency Department students and reduce stress of employment.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276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mong 4 emergency college students in Jeollabuk-do and Jeollanam-do at 4-year and 3-year colleges from September 10 to 15, 2017.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18.0 program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linical training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 $r=-0.192$ ,  $p=0.001$ ),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areer stress and clinical training stress ( $r=0.222$ ,  $p<0.001$ ), an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areer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 $r=-0.245$ ,  $p<0.001$ ). In the multi-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was discovered: higher clinical training stress ( $\beta=0.157$ ,  $p=0.005$ ), lower major satisfaction ( $\beta=-0.211$ ,  $p<0.001$ ), and higher career stress. Junior students ( $\beta=0.237$ ,  $p<0.001$ ) and senior students ( $\beta=0.288$ ,  $p<0.001$ ) had the highest career stress. Subjects with medium-level financial status had high career stress ( $\beta=0.173$ ,  $p=0.012$ ).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colleges should reduce clinical training stress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students, and more job support centers should be opened and job management programs developed.

**Keywords** : Clinical practice stress, Collegi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ployment stress, Major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Duk-Won Kim(Wonkwang University Hospital)

Tel: +82-63-837-8334 email: grandduke88@naver.com

Received November 8, 2017

Revised (1st November 16, 2017, 2nd November 20,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 1. 서론

응급구조사는 현장과 병원 응급처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며, 이러한 역할을 대비하기 위해 신입생 때부터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역할과 전문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대학교육은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유능한 인력을 사회에 배출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고 유능한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1]. 그러나 최근 경제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상당수 학생들은 개인의 자질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취업하기가 원활한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를 경험하거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할 수 있다[2].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자기 이해와 생의 목표를 생각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회인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인데[3], 전공만족도가 낮아지면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대학 졸업 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4].

또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서 응급구조사에 대한 적성을 점검하고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또는 응급구조사로서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임상실습은 보건계열 학생에게 중요한 교과과정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조화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자체가 단순한 실습만이 아니라 복잡성을 지닌 하나의 사회조직으로의 투입과정이다[5].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임상이나 구급차에서 적용하는 데는 임상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대상자의 요구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로 인한 무력감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장실습에 회의를 느끼거나 흥미를 잃는 일이 많을 수 있으며 기대에 어긋나는 임상실습경험으로 위축되거나 좌절 할 수도 있다[6]. 그리고 학생들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실습은 물론 취업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추후 취업 후에도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7].

그리고 대학생 시기의 취업준비는 졸업 후 취업성공과 직결되며 성인기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시기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8]. 하지만 현재의 대학생들은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보다는 앞으로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가지게 하여 새로운 환경인 대학문화 속에서 친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9]. 하지만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으로 그 동안 취업에 용이하다고 여겨졌던 응급구조학과도 더 이상 취업문제에서 예외일 수만을 없을 것이다.

응급구조사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구조사의 직업적 특성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10명 내외의 소수의 응급구조사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근무하는 간호사와는 달리 빠르게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이다. 또한 Uhm[10]과 Park 등[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30년에 응급구조사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 한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느끼는 취업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 등의 연구는 있었지만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실습을 경험한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대상자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 1개와 3년제 대학 4개의 응급구조학과 2, 3, 4학년 학생 중에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 2.2 자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0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총 5일 간 이었다. 본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의 작성방법을 설명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보고 형식으로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총 297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응답이 성실하지 못한 21부를 제외한 276부를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Beck 등[12]이 개발하고 Kim 등[1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실습 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 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0$ 이다.

####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측정도구는 Ha[14]가 작성한 34개 문항의 학과만족 도구 중 Lee[15]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식만족 6문항, 일반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관계만족 3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0$ 이다.

#### 2.3.3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는 Hwang[16]이 개발하고 Kang[1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성격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스트레스 5문항, 학업스트레스 6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스트레스 3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1$ 이다.

### 2.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및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3.12세( $\pm 2.57$ )였다. 성별은 남자가 59.1%로 많았고, 학년은 3학년이 56.5%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보통이 43.5%로 가장 많았고, 가정분위기도 보통이 59.4%로 가장 많았다. 진학동기는 '적성에 맞아서'가 30.8%로 가장 많았다. 동아리 활동은 안하는 대상자가 86.2%로 더 많았고, 희망진로는 공무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3.9%로 가장 많았다. 전공선택시 반대한 가족이 있는지 여부는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90.9%로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276)	%
Gender	Male	163	59.1
	Female	113	40.9
Grade	2nd	84	30.4
	3rd	156	56.5
	4th	36	13.0
Family economic level	Good	75	27.2
	Normal	120	43.5
	Bad	81	29.3
Family intimacy level	Good	63	22.8
	Normal	164	59.4
	Bad	49	17.8
Entering school motivation	Aptitude	85	30.8
	Recommendation for other	39	14.1
	High employment rate	54	19.6
	Future promising	45	16.3
	According to the test score	53	19.2
club activities	Yes	38	13.8
	No	238	86.2

Academic record	Good	61	22.1
	Normal	141	51.1
	Bad	74	26.8
Future employment	Public officer	204	73.9
	Hospital	65	23.6
	Graduate school	7	2.5
Family member's objection selecting major	Yes	25	25
	No	251	90.9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는 4학년이 2학년과 3학년보다 전공만족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 $F=4.231, p=0.016$ ), 취업스트레스 또한 4학년과 3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10.070, p<0.001$ ). 또한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나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F=5.490, p=0.005$ ), 보통보다 좋음이라고 응답

한 대상자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F=4.168, p=0.016$ ), 취업스트레스는 경제적 상태가 나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5.836, p=0.003$ ). 성적은 좋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t=3.374, p=0.036$ ). 또한 전공선택시 반대한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더 높았다( $t=2.874, p=0.007$ ) (Table 2).

### 3.3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72점이었고 세부항목은 실습교육환경항목이 2.82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3.59점이었고 세부항목은 일반만족항목이 3.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스트레스는 3.83점으로 나타났고 세부항목은 학업스트레스항목이 3.89점으로 가장 높았다(Table 3).

**Table 2.** Differ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stress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2.71±0.59	-0.148	3.58±0.71	-0.344	3.81±0.80	-0.642
	Female	2.72±0.53	(0.880)	3.61±0.73	(0.731)	3.87±0.78	(0.522)
School level	College	2.74±0.51	1.102	3.53±0.73	-2.226	3.78±0.78	-1.777
	University	2.66±0.67	(0.271)	3.74±0.68	(0.027)	3.96±0.81	(0.077)
Grade	2nd	2.69±0.46		3.60±0.76	4.231	3.53±0.78	10.070
	3rd	2.77±0.59	2.222	3.52±0.71	(0.016)	3.94±0.82	(<0.001)
	4th	2.56±0.62	(0.110)	3.90±0.58	c>b	4.09±0.71	b,c>a
Family economic level	Good	2.58±0.58	5.490	3.79±0.73	4.168	3.64±0.88	5.836
	Normal	2.66±0.49	(0.005)	3.49±0.67	(0.016)	3.75±0.72	(0.003)
	Bad	2.84±0.57	c>a	3.56±0.74	a>b	4.01±0.72	c>a
Family intimacy level	Good	2.65±0.61		3.59±0.66		3.83±0.77	
	Normal	2.75±0.54	0.779	3.58±0.71	0.103	3.86±0.81	0.275
	Bad	2.70±0.58	(0.460)	3.63±0.83	(0.902)	3.76±0.77	(0.760)
Entering school motivation	Aptitude	2.67±0.50		3.73±0.80		3.71±0.77	
	Recommendation for other	2.69±0.48		3.37±0.55		3.84±0.78	
	High employment rate	2.77±0.49	0.485	3.61±0.74	2.018	3.86±0.80	1.398
	Future promising	2.68±0.63	(0.747)	3.63±0.66	(0.092)	3.79±0.73	(0.235)
Club activities	Yes	2.73±0.56	0.154	3.78±0.69	1.734	3.94±0.75	0.921
	No	2.72±0.56	(0.877)	3.56±0.72	(0.084)	3.81±0.80	(0.358)
Academic record	Good	2.69±0.56		3.77±0.68	3.374	3.86±0.75	0.163
	Normal	2.76±0.55	0.888	3.59±0.75	(0.036)	3.80±0.84	(0.850)
	Bad	2.66±0.59	(0.413)	3.45±0.66	a>c	3.86±0.75	
Future employment fields	Public officer	2.70±0.55		3.56±0.75		3.86±0.77	
	Hospital	2.77±0.59	0.384	3.67±0.60	1.114	3.76±0.86	0.450
	Graduate school	2.63±0.81	(0.682)	3.86±0.63	(0.330)	3.73±0.88	(0.638)
Family member's objection selecting major	Yes	2.84±0.63	1.101	3.92±0.57	2.874	3.76±0.86	-0.491
	No	2.71±0.56	(0.272)	3.56±0.72	(0.007)	3.84±0.79	(0.624)

**Table 3.**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Characteristics	Mean±SD	Min	Max
Clinical practice stress	2.72±0.56	1.29	4.75
-Educational environments	2.82±0.82	1.00	5.00
-Role model	2.71±0.71	1.00	4.00
-Practice burdens	2.67±0.71	1.25	4.00
-Patient conflicts	2.77±0.72	1.00	4.00
-Personal relations	2.63±0.71	1.00	4.00
Major satisfaction	3.59±0.72	1.66	5.00
-General satisfaction	3.64±0.80	1.50	5.00
-Perception satisfaction	3.63±0.84	1.00	5.00
-Curriculum satisfaction	3.41±0.74	1.66	5.00
-Student-Faculty relationship satisfaction	3.59±0.84	1.33	5.00
Employment stress	3.83±0.79	1.00	5.00
-personality stress	3.86±0.87	1.00	5.00
-vocational choice anxiety stress	3.71±0.95	1.00	5.00
-home environment stress	3.82±0.89	1.00	5.00
-school environment stress	3.84±0.88	1.00	5.00
-Study-related stress	3.89±0.89	1.00	5.00

### 3.4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0.192$ ,  $p=0.001$ ). 그리고 취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사이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r=-0.245$ ,  $p<0.001$ ), 취업스트레스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0.222$ ,  $p<0.001$ )(Table 4).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0.192 ( $p=0.001$ )	
Employment stress	0.222 ( $p<0.001$ )	-0.245 ( $p<0.001$ )

### 3.5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취

업스트레스 결과에서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은 2학년 보다 3학년( $\beta=0.237$ ,  $p<0.001$ )과 4학년( $\beta=0.288$ ,  $p=0.001$ )의 경우가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좋은 경우보다 보통인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beta=0.173$ ,  $p=0.012$ ).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beta=0.157$ ,  $p=0.006$ ),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211$ ,  $p<0.001$ )(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ress

Characteristics	Categories	B	$\beta$	T	P
Clinical practice stress		0.221	0.157	2.755	0.006
Major satisfaction		-0.233	-0.211	-3.683	<0.001
Grade (2nd)	3rd	0.381	0.237	3.849	<0.001
	4th	0.680	0.288	4.654	<0.001
Family economic level (/Good)	Normal	0.278	0.173	2.522	0.012
	Bad	0.082	0.047	0.697	0.486

$R^2=0.189$   $p<0.001$

## 4. 고찰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2.72점이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Jeon 등[18]의 연구결과에서는 3.06점으로 더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입학동기가 ‘적성에 맞아서’라고 응답 대상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입학하게 된 동기가 과거 보다는 확고한 상태이며, 응급구조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세부항목 중 실습교육환경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인 2.82점을 보였는데, 이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학기 중이 아닌 방학 중에 이루어져 짧은 방학기간동안 실습기관에 많은 학생들이 실습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나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아졌는데 이는 대부분 타 지역에서 실습을 수행해야하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실습기간 동안 머물러야하는 숙소마련비용과 식비 등이 부담되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되며,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만족도는 평균 3.59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ark 등[19]과 Noh 등[20]의 연구에서는 각각 3.82점, 3.93점으로 나타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4년제 대학보다 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으로, David 등[7]은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학생들이 추후 취업하였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의 형성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올바른 전문직관을 형성하고 응급구조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현장에 잘 적응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전공만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평균 3.83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ong 등[21]의 연구와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Ryu[22]의 연구에서는 각각 2.51점, 2.27점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올해 졸업을 앞둔 3학년, 4학년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응급구조사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기관인 의료기관과 소방방재청 119안전센터[23] 중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구조사의 직업적 특성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소수의 응급구조사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배출되기 시작한지 22년이 지난[23] 현재 시점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취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소방방재청 119안전센터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졸업 후 공무원시험 통과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통계[23]의 응급구조사 배치현황에 의하면 1급 응급구조사 5,684명 중 5,201명이 의료기관과 소방방재청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대부분의 응급구조사들이 의료기관과 소방방재청 119안전센터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이나 군기관, 교육기관, 산업체 등의 응급구조사

의 채용증가를 통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취업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상담 등의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전공만족도가 감소할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들은 취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경제적 상태가 좋은 학생들에 비해 높아 더욱 많은 취업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5. 결론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고,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졸업을 앞둔 3학년과 4학년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경제적 상태가 나쁠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며, 의료기관과 소방방재청 119안전센터 이외의 취업기관 확대가 필요하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Reference

- [1] J. W. Lee, H. J. Moon, M. S. Choi, The research for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and adaption of the student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0, no. 11, pp. 3451-3457, 2009.  
DOI: <https://doi.org/10.5762/KAIS.2009.10.11.3451>
- [2] E. K. Mun,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burnout of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2.
- [3] H. J. Park,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DOI: <https://doi.org/10.4040/jkan.2010.40.1.14>
- [4] O. S. Lee, M. O. Gu, M. J. Kim,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 no. 6, pp. 3902-3910,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6.3902>
- [5] S. Y. Kim, C. H. Kim, J. Y. Song, D. H. Ahn, J. B. Chae, An investigation of factors which influence physical therapy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linical practice, Korean Research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ol. 11, no. 3, pp. 71-84, 2004.
- [6] O. S. Lee, I. S. Shu, A study on the kind of nursing activities which nursing student had experienced and the degree of stress perceived during the period of nursing activit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ollection of Dissertations, vol. 39, no. 1, pp. 183-194, 1995.
- [7] B. David, W. Elizabeth, R. Rachel,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 12, no. 1, pp. 45-51, 2007.
- [8] Y. J. Kim,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employment goal setting to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293-7299,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1.7293>
- [9] E. K. Byun, S. H. Park,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 pp. 323-330,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1.323>
- [10] T. H. Uhm, A Study on projection of demand and supply for paramedic i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vol. 7, no. 1, pp. 55-64, 2003.
- [11] S. M. Park, E. S. Choi, M. S. Kim, K. Y. Lee, Career choice and employment preparation condition for EMT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vol. 15, no. 1, pp. 65-78, 2011.
- [12] D. L. Beck,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0, no. 3, pp. 127-133, 1991.
- [13]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1, pp. 98-106, 2005.
- [14]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15]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 [16] S. W. Hwang,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1998.
- [17] Y. R. Kang,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06.
- [18] H. Y. Jeon, K. Kim, H. K. An, An analysis study on stressor experienced by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vol. 3, no. 1, pp. 43-54, 1999.
- [19]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17-426,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417>
- [20] G. O. Noh,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academic resilience on the level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3, no. 2, pp. 205-213, 2017.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7.23.2.205>
- [21] H. S. Song, S. H. Lim,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carri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14, pp. 21-36, 2017.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14.21>
- [22] H. G. Ryu,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ing 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6, no. 4, pp. 591-599, 2016.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6.16.04.591>
- [23]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An Annual Reports of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e-gen.or.kr/nemc/statistics\\_annual\\_report.do](http://www.e-gen.or.kr/nemc/statistics_annual_report.do) (accessed Oct., 20, 2017)

**김 덕 원(Duk-Won Kim)**

[정회원]



- 2017년 8월 :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7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
- 2016년 5월 ~ 현재 : 원광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구조사

<관심분야>

응급구조학, 전문심장구조술,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

**주 호 현(Ho-Hyeon Ju)**

[정회원]



- 2015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광양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조교수

<관심분야>

응급구조학, 응급외상학, 응급내과학